

휘발유, 1900원대에서 요지부동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3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2.2원 내린 1914.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2010년 10월 첫째 주 이후 26주 연속 상승했으나 정유기업의 공급가격 인하 방침(4월7일)에 힘입어 4월 둘째 주에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5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으로 오르고서는 5월 셋째 주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용 경유는 리터당 16.1원 내린 1733.8원을 기록해 5주 연속 하락했고, 실내등유 평균가격도 전주보다 6.4원 내린 1352.5원으로 3주 연속 떨어졌다.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평균 공급가격 변화

(단위 : 원/ℓ)

구 분	2010	2011.4월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전주대비
보통휘발유	712.2	907.1	931.9	924.7	891.1	864.1	↓27.0
자동차용 경유	749.9	1,011.2	1011.3	961.7	926.3	925.2	↓1.1
실내등유	743.3	1,016.3	1047.7	1016.7	991.9	977.2	↓14.8

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971.7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1922.2원), 부산(1921.0원)이 대체로 비쌌으며 광주(1887.1원), 전남(1895.4원), 제주(1895.6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5월 넷째 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27.0원 내린 864.1원, 경유는 1.1원 하락한 925.2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 및 미국-캐나다 사이의 송유관 가동 중단 등으로 국제 석유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세를 보인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1/06/07>